

〈독도사랑 웹툰〉

독탐대실

온 새 미 로

작가들의 말 말 말

독탐대실은 온새미로 학생들과 미래 웹툰가를 꿈꾸는 3학년 6반 허민서 학생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내용 및 구성은 온새미로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이고, 그림은 허민서 학생이 독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재능 나눔 하였다.

독탐대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서라도 얻으려는 일본이 독도를 탐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결코 가까울 수 없고, 편할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러나 중학생인 우리가 느끼는 일본은 역사적인 맥락과는 달리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숙하고 꼭 가보고 싶은 동경의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시절 불법적으로 점령한 독도를 그것도 이미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집요하게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지 주장이 반복될수록 우리들 마음속의 좋았던 일본 이미지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한국어 버전의 웹툰이지만 영어,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어도 좋을 듯하다.

마동중학교 축제 때는 영어, 일본어 버전으로 만들어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새미로의 독도 웹툰은 긴 문장을 읽기 싫어하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축하다

너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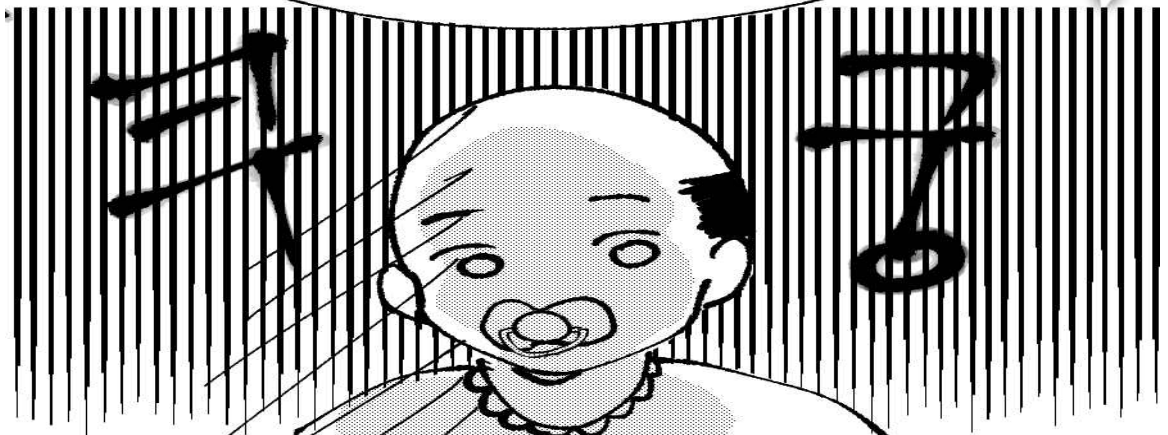
축하

...시비냐?

뭐?

왜냐면,

진심인데



우리뽕뽕이 잘부끄러워한다.

싱어

하 버마
나 나
아아노라

